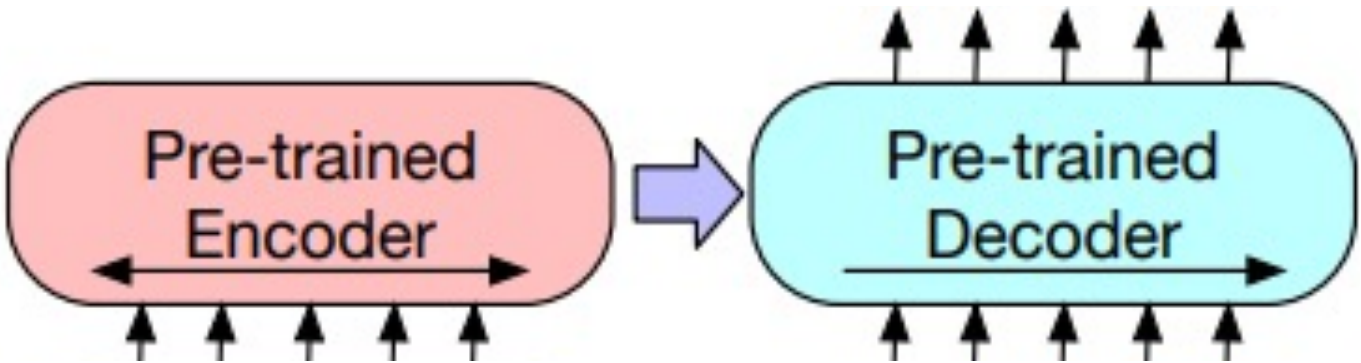


국가신용등급 'AA, 안정적' 유지...올해 성장률 2.5% 예상. "재정 여전히 강하고 재정수지는 2024년 흑자 전환...2025년 1인당 GDP 4만달러""북한 통일비용 리스크·공기업 부채는 재정에 부담 요인" <s>



KoBART

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는 26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'AA'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. 다만 S&P는 "북한 관련 리스크(통일 비용)와 공기업 채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 요인"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기업을 대규모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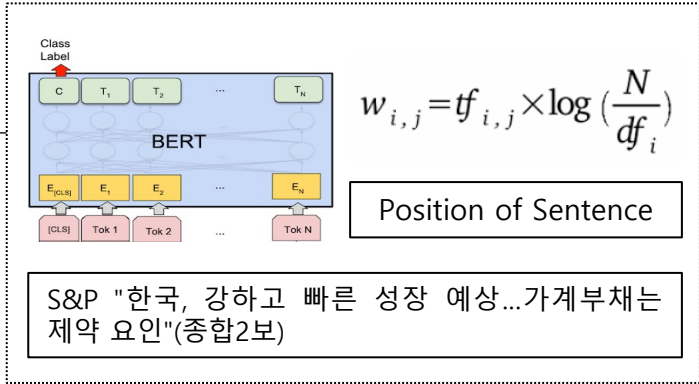
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는 26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'AA'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.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'안정적'으로 부여했다.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'A-1+'을 유지했다. 다만 S&P는 "북한 관련 리스크(통일 비용)와 공기업 채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 요인"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기업을 대규모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.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GDP의 20%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.

추출된
중요문장

본문

<s> 국가신용등급 'AA, 안정적' 유지...올해 성장률 2.5% 예상. "재정 여전히 강하고 재정수지는 2024년 흑자 전환...2025년 1인당 GDP 4만달러""북한 통일비용 리스크·공기업 부채는 재정에 부담 요인"

부제목



주제목